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과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강유덕

과제구분	정책
구분 선정 사유	<p>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복지지출이 지적되나,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전한 재정과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입증함.</p> <p>따라서 북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개혁을 살펴보고 경쟁력과 복지를 결합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수단을 도출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p>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방만한 재정지출이 지적되고 있으며,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
 -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한 데에는 경제수준과 경쟁력 대비 과도한 복지지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
 - 또한 유럽의 높은 실업률에는 복지남발로 인한 노동유인 및 노동의욕의 감소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재정위기 이전부터 유럽의 높은 실업률은 유럽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
- 그러나 높은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북부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건정성과 높은 산업경쟁력,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어 남유럽 경제와는 확연히 구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재정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북유럽' 경제는 남유럽 경제와 확연히 구분되는 저항력을 증명
- 북유럽 국가들은 위기에서의 회복속도가 매우 빠르며, 실업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경제는 높은 산업 경쟁력과 복지수준을 동시에 결합한 사회경제 모델로 볼 수 있음.
- 북유럽 경제는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이 남유럽 경제보다 현저히 높으며, 복지지출의 비중도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복지지출만으로 경제적 비효율성과 높은 실업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복지정책의 내용과 그동안의 개혁,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GDP 대비 세수비중(%): 덴마크 (48.2), 스웨덴 (47.1), 핀란드 (43.1), 오스트리아(42.8), ↔ 스페인 (33.1), 그리스 (32.2), 미국 (24.0), 한국 (25.6) - OECD 평균은 34.8%

- 한국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충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복지정책과 경쟁력을 양립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필요한 상황
- EU 회원국은 복지와 재정정책에 관한 한 기존의 개혁노력 등 정책경로가 상이하여 벤치마킹과 타산지석의 사례연구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경쟁력과 복지를 결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북유럽과 남유럽 복지제도의 정책경로와 개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산업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분석대상국가는 북유럽 국가(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남유럽 국가(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며 분석분야로는 복지정책을 위주로 한 재정정책(사회보장, 고용, 연금, 의료), 연구대상 기간은 최근 10여 년 동안의 복지개혁과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이후의 개혁동향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 경제의 효율성 분석 -연구자(년도): 주상영·김홍중(2004) -연구목적: 유럽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거시적 성과를 통한 유럽 경제의 특성 분석	-문헌연구 -통계분석	-유럽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노동, 금융, 시장규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이러한 특성들이 어떤 요인과 관련되며 거시경제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유럽 경제의 특징을 OECD 기타국들과 비교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과제명: 유럽사회경제모델의 유형별 특징과 성과 -연구자(년도): 배재수·권용오(2005) -연구목적: 유럽 국가들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 모델별 특성과 성과를 분석	-문헌연구	-유럽의 사회경제모델은 크게 노르딕, 앵글로색슨, 대륙 및 지중해 모델로 구분 -각 모델별 경제사회특성을 분석하고 효율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각 모델별 성과를 비교 -효율 측면에서는 노르딕 및 앵글로색슨 모델이, 평등 측면에서는 노르딕 및 대륙모델이 우월
	3	-과제명: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연구자(년도): 김득갑 외 4명(2012) -연구목적: 세계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요인을 분석	-문헌연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적 성과를 거둠.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하는 북유럽 경제의 특성을 분석 -건실한 재정, 일하는 복지, 성장동력 투자, 강한 사회적 자본 등이 성공요인
	4	-과제명 The French Welfare: An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analysis in European Perspective -연구자(년도): Boyer, Robert (2000) -연구목적: 프랑스의 복지체계를 경제 성장과 재정건정성의 관점에서 주요 유럽 국가와 비교	-문헌연구 -통계분석	-현대 복지제도가 설립된 배경을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 -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부채널을 이론적으로 분석 -복지와 경제성장, 경제적 평등, 재정건정성의 함수관계를 파악하여 프랑스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유럽 국가와 비교

본 연구	-북유럽,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유형을 사회경제모델의 관점에서 고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경제들의 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분석 -경쟁력과 복지를 결합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시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도출 및 유럽 복지 모델의 한국적 도입가능성 검토	-문헌연구 -통계분석 (재정건정성의 결정요인, 산업경쟁력 분석 및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해당 국/ 지역의 복지 재정정책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정책 비교를 담당하고 있는 OECD 등에 출장,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	-국가별 재정지출의 추이와 복지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일정한 트렌드를 도출, 복지국가의 재정과 산업경쟁력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파악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개혁과정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 대한 각국의 위기 저항력' 평가 및 복지와 재정위기와의 함수관계 파악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결정변수 중 복지관련 변수를 파악, 복지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재정건정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복지개혁의 조건과 방법 도출
------	--	--	---

■ 주요 연구내용

□ 첫째, 재정위기와 복지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함.

- 유럽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복지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제도를 평가, 분석(특히 북구형, 남유럽형 등 유형별 분석)

□ 둘째, 유럽 각국의 복지제도와 재정구조의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 또는 사회자본주의 모델에 따른 국가별 분류를 실시하도록 함.

- EU 27개국은 밀접한 정책조율을 추진해 왔으나, 각국의 복지제도는 그 기원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등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EU 차원의 조정과는 별도의 발전경로 또한 존재

- 국가별 GDP 대비 정부지출, 복지지출의 비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다양한 복지국가 또는 사회자본주의의 수준, 선호도 또한 다르므로 이에 대한 비교가 필요

□ 셋째, 성공적인 국가(가령 북유럽)에서 복지와 산업경쟁력이 양립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실패사례로 거론되는 국가에서의 실패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또는 산업경쟁력)의 양립가능성을 모색

- 복지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재정효율성의 강화, 경제구조의 개혁과 같은 조치를 통해 '복지(또는 고용, ALMP) 정책 → 사회안정망 /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 내수기반확보/산업경쟁력 유지' 등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로존 가입 이후 저금리자금의 유입에 따른 민간부문의 차입 및 지출증가와 더불어 적자재정을 통한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가별로 보다 정치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경로와 사회적 논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복지확충과 재정건전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에 대립하고 있는 한국에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복지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

□ 목차 (잠정)

1. 서론

2. 주요국의 복지모델 점검

2.1 복지모델의 기원

2.2. 유럽 주요국의 재정구조와 복지모델 점검

2.3. 재정건전성 검토

2.4. 소결

3. 복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추이

3.2. 복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

3.3. 재정건전성 악화/개선의 결정요인

3.4. 소결

4. 복지정책과 산업경쟁력의 조화

4.1. 산업경쟁력의 배경

4.2. 산업경쟁력의 요인분석

4.3. 복지와 산업경쟁력의 함수관계

4.4. 소결

5. 주요국의 복지개혁 (국가는 추후 확정)

5.1. 스웨덴

5.2. 독일

5.3. 네덜란드

5.4. 덴마크

6. 결론

■ 연구추진방법

□ 연구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선행학습을 통해 연구대상 국가를 선정할 후 이에 따라 연구진을 구성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북유럽 (Nordic스웨덴, 덴마크, 독일어권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남유럽권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을 선정할 후 추후 분석국가를 좁힐 예정임.

□ 문헌, 통계 등 출판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함.

- 해당 국/지역의 복지/재정정책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정책비교를 담당하고 있는 OECD 등에 출장,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할 계획

□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4월 12일
- 연구중간심의회: 7월 12일
- 연구결과심의회: 11월 29일
- 전문가 초청 간담회: 4월, 7월, 10월 3차례 간담회 추진 예정
- 관련 해외 출장: 7월, 10월 유럽 출장 예정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GOVI001	섬기는 정부	GOVI501	나라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겠습니다.
2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6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
3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1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겠습니다.
4	GOVI003	능동적 복지	GOVI5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제로 바꾸겠습니다.
5	GOVI003	능동적 복지	GOVI545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6	GOVI003	능동적 복지	GOVI554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7	GOVI003	능동적 복지	GOVI556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복지제도와 경제효율성/산업경쟁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 모델과 사회자본주의에 대한 이론발전에 기여
- 재정위기와 복지제도 간의 상관관계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건들을 일반화하여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경쟁력과 복지를 결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현재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3.03.01	종료일	2013.12.31
------	---------	------	----	----	-----	------------	-----	------------